

2021년 3월 7일 주일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마 5:43-48

전체 찬양)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오늘 때가 때니 만큼 모두 집에서 예배 드리죠? 다같이 신나게 찬양하자구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시대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왔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모르니 심정타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냈느냐. 너희를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모르면 안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돕고 하는데 모르면 안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했구나! 모르면 안돼.

유대인들은 불신했죠. 나중에 주를 찾는 자를 위해서 쓰셨죠.

메시아는 어느 시대든지 그 사명으로 오지 않습니까?

멋있게 지휘하자구요.

선생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거룩한 주일. 서로 한자리 만나게 되었어요. 온 지구상의 섭리 모든 여러분들. 한주일 동안 부지런하라고 해서 부지런의 불이 붙었을 줄로 압니다. 한번으로 끝낸 사람, 두 번 세 번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부지런하게 이어져 왔을 거예요. 부지런함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온 거예요. 부지런해야 너희도 하나님 같이 온전하다. 우리도 부지런하면서 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 부지런할 때 빛을 발하고, 온전할 때 빛을 발하죠?

금년도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빛을 발하고, 금주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와같이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꼭 새롭게 해야 되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과목을 종목 종목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모두 읽어 봤죠? 읽어 보라는 것은 이미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문 말씀 설교를 들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하늘 아버지같이 온전해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 말씀을 꼭 짚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방금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한마디만 해줘 하니, 나의 온전함을 증거하라 했어요. 와~ 그래야 안 잊어 버려요. 설교 전에 주면 잊어 버려요. 증거하는 것으로 알고, 설교에 넣습니다.

온전하라는 것을 어디서 충격적으로 알았는고 하니, 유대인들이 정말 외식과 형식이요, 이것은 얼토 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형편도 없는 이들을 보고 온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말라. 소금같이 되어라. 정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화해도 하라. 화해가 안 통하는 자들이구나.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씹어 대느냐? 정확한 포탄을 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조금 더 천천히 해줄게요. 음을 높였다, 낮추었다, 할 때가 있어요. 표현력.

원래 조은 목사한테 말했는데 나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께서 계시면 으셨으니 선생님께서 전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단상에 섰어요.

온전하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할게요. 이 말씀을 그 전에 들었을 때, 기성에서는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냐, 어떤 차원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라는 것이라라고 가르쳐요. 자기주관으로 해석을 해요. 이들은 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뺍니다. 빼면 자꾸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신앙 뺏기지 말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인데. 더하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요. 곱하기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5곱하기 8은 40. 어마합니다. 곱하기로 가야 돼요. 적어도 곱하기에서는 놀아야 합니다.

땅을 사도 곱하기예요. 땅도 5억주고샀는데 30억 되면 6배는 곱하기 한거예요. 5억샀는데 7억 되었으면 더하기 정도입니다. 5억 주고 샀는데 3억에 팔면 빼기예요. 손해예요. 지금 곱하기 정도는 가야 됩니다. 주와 함께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곱하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빼기 더하기만 계속 하다가 그 자리에 있게 된거예요. 이와같이 우리도 곱하기 신앙을 해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큰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주신 것으로 하는데.

7번씩, 70번 참고 용서하셨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남을 용서하는 만큼 너도 용서받는다 고 하니, 서로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신앙은 7번씩 70번, 그러면 490번. 500에 가까이 가니 곱하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사랑해주고 이런 것을 잘하는 편인데 힘들어요. 그런데 닦아 놓아서 여러분들도 쉽습니다. 용서해 주어라. 억울해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곱하기 신앙으로 축복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했는데 이리 가면 온전한 거예요. 노아는 온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맡기고 사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맡기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나도 다 맡긴다고 해놓고 행동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맡기는 것을 그대로 할 때 온전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어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섭리의 자부심! 무엇이 온전하다고 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온전하니 다른 것도 온전하겠지만 말씀이 온전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봐도 모순이 없어요. 원래 진리는 모순이 없는데, 한 가지가 모순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이것 저것 갖춘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행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불신하고 이단시하고 헐뜯고 했어요. 그만큼 몰랐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온전하다.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운전에 온전한 자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구단 다 외죠? 그럼 구구단에 온전한 자예요.

여러분들 지체가 다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다쳐서 없어졌으면 빠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면 이것저것 다 할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나라. 나를 믿고 새로워져라 했습니다. 역시 영적인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영이시고 기다린 자들은 육의 입장.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적으로 거듭나라.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온전하지 못했죠. 온전하려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물이 핵이 있어요. 나무를 봐도 핵이 있어요. 핵만큼은 온전해야 됩니다. 또 작품을 봐도 온전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작품(단상kép)이 있는데 독수리를 올려 났는데, 부러지면 온전하지 못하죠. 핵만큼은 온전해야 됩니다. 핵에서 가치가 좌우됩니다.

다. 핵이 안 깨졌으니 핵을 중심해서 가더라구.

핵은 핵무기와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정신, 사고, 사상이 온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할 때 자동적으로 몸뚱이가 돌아가고 움직이죠. 충분히 온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만큼만 하면 온전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해되죠?

나는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기성의 말씀으로 굳혔어요. 그러나 수도생활할 때 얼마든지 온전할 수 있으니 온전하라고 한 것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온전하시니, 나도 할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데 못하나? 게을러서 못하고, 마음이 흩어져서 못하고, 태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라는 설교에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증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온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양도 온전하게 만들고 해와 달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보름 커지고, 보름 작아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해요. 모든 천지만물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지구도 때와 시기에 따라서 초를 어기지 않고 가고 있어요. 이와같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나의 것이다. 나 여호와께 배우고 온전하라. 내가 만든 것 같이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맡겼을 때 너희도 나처럼 온전하라고 했어요. 논바닥에서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따라서 그리고 있었어요. 축소 확대 그림이었어요. 신령하고 기이한 말씀을 받았죠. 나와 같이 하면 온전해 진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나니까? 나와 같이 하라. 붓을 주신 것은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려서 만든 것이 도표이지 않습니까? 시대를 휘날리는 말씀 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늘 감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도 너무 멋지게 만드셨는데, 어디서 보셨냐고. 그렇게 물었지만,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내 몸을 봐도 너무 귀하게 만들었다고. 머리, 뇌, 너무 신비하게 만드셨다고. 너무 감탄한다고. 자기가 매일 연구하면 매일 감동 받아요.

참 하나님 너무 신비하게 잘 만들었다고. 나도 무엇을 만들 때 저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야지! 인간을 가장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육의 형상보다도 마음, 정신, 생각, 사고 엄청난 사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영의 세계를 안 거예요.

중고등부 진로문제, 어떻게 성공하는가? 결국은 나였어요. 나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료가 나에게 다 있어요. 손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로 성공하는거예요. 자기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돈도 벌고 구원도 받고 자기가 엄청난 세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 하면 육적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만들 때 위대한 역사,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때 마음 상하지 않게 하죠.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안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진정으로 죽~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무리 살아봐도, 수백조가 있어도 내가 먹는 것과 비슷해요. 4끼를 먹겠어, 5끼를 먹겠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자기도 택했냐고? 택했다고. 그래야 일도 재밌고, 잠을 자도 재밌고, 사는 것이 다 재밌다고, 이상세계. 그래야 편하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편하다고. 공부를 해도 마음이 곤고하고 불편해.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 때 그로 인해서 전체가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간다면 저승길을 가다가 다시 올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끄끅거리지 말고 꼭 말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았어. 누구나 해야 됩니다. 미련도 없이 하는데 어느 날 나이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여! 꼭 해야 돼. 아주 해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안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느냐. 이런 정신으로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그 목적 가지고 왔어. 1등 포기한 사람은 여기 저기 쳐다보면서 뛰어요. 여기 저기 어떤 말에도 유혹받지 말고, 누가 뭐래도 바빠! 하고 딱 끊어버려! 이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의 행실이니라!

여러분도 오랜 역사를 살아봤죠? 나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온전한 말씀을 받으려고 2천독 넘게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은 2천독 훨씬 넘었죠. 구약, 신약 말씀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말씀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만큼은 온전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고, 육신 되어서 행해야 됩니다. 설교 백번, 천번 들어도 안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천자의 것이에요.

실천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하라! 이것은 백점 맞는 것입니다. 100프로 다 쓰면 A+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산 도전하고 알프스 산을 도전하고 높은

세계적인 산을 탐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타고 자랑하고.

여러분도 온전한 봉을 타보라구. 온전하면 하나님의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온전한 말씀을 주시죠. 말씀 듣고 꼭 도전하기 바랍니다.

물 먹었다고 수영을 안 배웁니다. 수영 20분만 배워도 수영할수 있어. 나같은 사람도 배우는데? 나같은 사람도 배웠어요. 물이 없어서 배울 데가 없는데도 물 먹어가면서 배운거예요.

이러므로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자신 가지고 해야돼. 왜 온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통하는 얘기에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뭔가 이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 보라고 온전하게 해야 돼.

뭔가 일을 시켰는데 답답하게 하면 답답해. 쿡쿡해. 확실하게 하고 가면 와~ 멋있다! 하죠?

성경에도, 지구상에도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중간도 있는데,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목요일에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하냐고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인 것이 있었어요. 장면을 보니까 화면으로 볼까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는 길이 안 닦아졌어. 국도로 나갈 수가 없는거예요. 이것이 뭐고 하니, 다음 주에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이죠.

기도하는데 물어보니까 이것은 자기 모순들이다. 닦으면 된다.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라고 했어요. 약속하고 못한 것 회개하고, 즉시 즉시 했더니 모두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기도하니 이런 장면이 또왔어요. 뇌에 환히 지혜로 깨달아 지는 거예요. 밭고랑 같이 있는데, 이것은 섭리 전체 계시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개통해야 된다. 자기가 전부 닦은 길이에요. 개통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안된다. 닦지 않은 것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길을 못간다. 역시 온전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들, 겉돌기만 하는 기도, 기도를 딱 쏘시고 들어야 해요. 물에 가서 허벅지만 왔다갔다 하면 안돼요. 물에 뛰어 들어서 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은 목사에게 자료를 주는데, 조은목사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봤죠? 뇌속으로 받은 이상의 세계입니다. 이러니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꼭 온전하게 해야 돼요.

어제 나무 기술자들이 왔는데, 나무를 보면서 흠을 한 차를 부어야 된다고 해요. 뿌리가 얇다고. 나무도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 한쪽이 썩더라구. 뿌리가 올라와서 바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곳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요. 빨리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부지런히하고, 기도도 겹돌기말고, 꼭 들어가서 통해야 되요. 그리고 말씀을 절대 믿을것! 그러면 잘되고 형통한다!

각자가 기도하면 깨닫게 해줄게요.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두 충분히 온전해 질수 있는 것들이예요.

분야별로 하라. 이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행해야 된다. 나도 여러분들도 하자!
우리 뭘해야 될까? 이제 가르쳐 줬으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온전해 지라고 하죠? 우리가 휴거 전에 온전하라고 많이 말씀했죠? 휴거는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른 자는 종에서 아들이 되었죠? 휴거 역사는 천년동안 진행됩니다. 당세에 보낸 자를 중심해서 일어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살면 계속 휴거 일어나죠? 온전해져라. 백프로 하라. 그러면 차원을 높이게 된다. 더 이상적인 것을 원하죠? 또 금년도 그 수준으로 보내겠어요? 깨끗하게 회개로 인해서 개통하고, 회개할 것을 해야 돼요. 닦다 보면 돌도, 흠도 나무도 나와요. 분야대로 본인이 제거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 전도, 관리, 자기를 만드는 것, 자기에 관한것도, 상대에 관한 것도 들어 있고. 꼭 짚어서 이것을 고쳐라. 그러면 차가 시동이 걸려서 짹짹 간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금주에 받고서 나도 어려운데 이들이 어떻게 할까? 감동이 되어서 기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 성령의 감동 받는 것을 즉시 즉시 해야 됩니다! 안하면 큰일나요! 성령이 감동 시킬때는 차가 획 지나가는 입장과 같아서 슬쩍 살짝 온다는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받고 즉시 해야 됩니다.

차원 높이면 판 세상이라니까! 그냥 일반 한계단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예요. 한 계단 올리면 판 차원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와 땅바닥이 한 차원이에요.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한 차원이 초등학교, 두 차원이 중학교, 삼차원이 고등학교, 사차원이 대학교, 오차원이 대학원, 직장이에요. 꼭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 꼭 차원

높여 올라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싶으셔서 정리를 하고 싶으시대요! 찾아가라. 조건을 못 세우니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한 차원을 높일 때 다른 세상이에요. 차원 높은 사람은 온전하게 해서 차원을 높이지 그냥은 안된다. 그러면 작년도 차원을 올해도 똑 같이 가는 거예요. 차원을 높여야 해요.

차보다 높은 것이 비행기예요. 엄청난 차이죠? 별이 일차원, 달이 이차원, 해는 삼차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을 높여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영계로 보니 다른 세계더라구. 영계가면 다 얼마 있으면 다른 차원 간다고 막 그래요. 중간 영계에 있더라구. 다른 세계예요. 일차원은 선영계, 이차원은 낙원, 삼차원은 천국, 사차원은 황금성, 오차원은 하나님옆. 다른 세계예요.

집도, 차도 차원에 따라 무게도 생긴 것도 다르죠? 여러분들 차원 높일려면 뛰고 달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전체에도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어제 중고등부에게 1시간동안 찬란한 말씀이 나갔어요. 지구상 사람 다 데려놓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주시더라구.

여러분들 한 차원이 뛸고 하니 고욤 나무, 2차원은 돌감람나무, 3차원은 접붙인 나무. 홀로는 안돼. 이 세상에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어딴냐고 했지만, 싸움의 세상에서는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고욤나무가 참감나무 열매를 열수 없어요. 일체 되어야 해요. 한 차원을 높일 때 어마한 세계예요.

마지막 말씀이 차원을 높여라. 휴거의 차원을 높여라. 어마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받아봐야 합니다. 시기질투하지 말고 뛰고 달려라!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파고 뛰고 달렸더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휴거의 차원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을 높이고, 말씀의 차원을 높여야 해요. 지금 21일 기도하고, 40일 기도 들어갔죠? 꼭 약속한 것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성령께 3시에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지키니 한 차원 높은 말씀이 온거예요. 안 지켰으면 오늘 말씀이 올수가 없죠. 휴거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에 꼭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한 것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못한 것 따로 있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원 높이고, 모순 덩어리를 싹 고치고 개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라. 충분히 하라. 하면 할수 있다!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로 하는 것이니 충분히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온전하게. 이 말씀을 미리 써먹다가 왔어요. 너무 좋아서. 개인에게 조금만 더하면 된다고, 3년, 2년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니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인상 찌푸리지 말고. 와! 하자! 기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푹푹하게. 섭리시대는 시대의 새역사를 가니 온전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마음에 확 들게 해버리자! 목욕탕가서 뜨거운 물에 씻고 나와도 개운하지만, 때를 밀어야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삭제시키고, 온전하게 하면 온전함의 세계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신앙을 겪어봤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 와계시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나같은 사람도 하는데 못해요? 나는 말씀도 설교도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다 할수 있다. 100점 말기는 어렵지만 하면 되더라.

완전하라! 사람이 완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 세계로 가고 있죠?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발판이 되면 그를 쓰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세우고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갈 길을 충분히 갈수 있다. 선지선열을 못한 일을 내 인생에 한번 해보자!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큰 인물입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온전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지상에 해당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영으로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놓아도 죽는다고 했죠? 조금만 주셔도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게 주시는 입장입니다.

금주에 꼭 불을 붙여서 가야됩니다. 게으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진드기가 붙고 날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뛰고 달리는 자에게는 못 들어가요. 온전치 못하니까 유혹이 오고 흑암의 세계가 오고 악평자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나무는 자꾸 죽어가요.

나는 단상에서 외치고 한다면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해요. 이왕에 할 바에야 확실하게 하라. 능력도 지혜도 다 줬는데 왜 안하냐. 하나님은 역력히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왜 못하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데. 이와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언제 삽으로 찍고 수십만 수천만 삽을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힘으로 해야 쉬워요. 여러분들 완벽한 자로 만들어서 쓰도록! 축구할 때 다리가 온전히 못해서, 각도가 온전치 못하고, 거리가 안 맞고, 힘이 맞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같이 온전함이 어디에서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학의 논리의 세계를 보면 정답 아닌 것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의 공식논리가 완벽해야 됩니다. 모두가 완벽,

완벽, 완벽! 재는 너무 완벽주의, 결벽주의라고 하는데 완벽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목욕탕에서 피가 날때까지 때를 미는 사람은 완벽주의라서 그럴겠지만.

우리 모두 재미있게 뜻있게 뛰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한동작 한동작 역시 완벽하게 해봐요. 다 할수 있어. 다 할수 있다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십계명이 어렵다고 안 지켰어요. 매일 살인해봐. 하다가 자기가 죽잖아? 살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믿고 매일 절하고 해봐. 얼마나 힘들다고.

성경에 너무 하지 말라는 것, 섭리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와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 죽는 것 일순간이더라구. 설마, 이쯤이야 하면 안됩니다. 완벽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깎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을 정도면 그 센터는 그 밑에까지 떨어진거예요.

금주에 차원높힌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주를 머리 삼고 사는 삶. 예수님때는 예수님을 절대 믿고 살 때 자녀권. 모세때는 모세를 믿어야 종. 시대는 보낸 자를 절대 믿고 따라야 사랑으로 통해서 신부의 휴거. 육신이 올라가는 휴거는 10억년이 가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휴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절대 신랑으로 보고 사랑의 주체로 보고 우리는 대상이 되어서 만들어 갈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의 휴거라고 했습니다. 천년 역사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11시가 가고 있다.10시는 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벌써 1초만 넘어가도 신약에서 성약으로 넘어갑니다. 1초만 넘어가면 그것이 성약역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강만 쳐도 20년이 넘어갔어요. 지키지 않으면 시계만큼도 안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구 창조 이래로 행하셨다구.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뒷북치고 있다. 한번 개를 길러봐라. 개도 떼어놓고 가니 냄새 맡고 따라오더라구.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죠.

내가 어느때에 설교를 잘하죠? 모르는 사람이 올 때, 아는 사람이 올 때 너무 잘합니다. 오늘 신입생들 온전한 것이 돈을 벌고, 진로가 결정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할 때 온전하라. 말할때도 온전하라. 입구가 닦아지지 않았어. 입구가 문제예요. 입구는 입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고, 이상하게 비원리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입을 닦아야 해요.

새로운 여러분들 말씀을 잘듣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렀으니 한달, 두달, 석달 계속 말씀 듣고,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야 돼요. 지구상의 가장 큰일이예요. 영원한 승리가니까! 세상에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예요? 동물과 똑같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부르셨나? 나와같이 형통되고 잘 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엄청난 일입니다. 계속해야지. 아이큐 200이라도 처음에는 몰라요. 계속 들으면 싹싹 들어옵니다. 신입생들 말씀듣고 부지런히 완벽하게 행해서 사고가 없어야 해요. 인재사고, 일하면서 사고, 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고 나지 말고 건강으로 완벽해 지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고, 복잡한 도시에 사고, 계단 조심, 꼭 해야 돼요. 완벽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외치고 성령으로 외치게 했습니다.

영계에서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빛의 세계로 가다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예요. 나이가 17, 18살 되는 아이들인데 시큰둥하게 받아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아니냐 하며 30분씩 전화를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하니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흰히 보였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보였고, 전화 할 때 말씀 전해줬고, 너가 하겠다고 하니 사망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또 봤다.

금년도는 꼭 올라가야 해요. 3월달은 올라가는 세계예요. 기도하겠어요!

지금 봄이 되어서 신앙 뿐 아니라, 전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하는 자들이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모두 힘차게 하자구요! 안녕!